



트리플 악셀 성공 기도... 안도!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간판 유영 7년간 연마한 기술 올림픽서 성공 오늘 프리스케이팅서 메달에 도전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간판 유영(수리고)은 만 11살 때인 2015년 '트리플 악셀' 훈련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전방을 향해 앞으로 힘껏 뛰어올라 공중에서 3바퀴 반을 돌고 착지하는 트리플 악셀은 당시 국내 여

자 선수 가운데 제대로 시도한 적이 없는 고난도 기술이었다.

'피겨 신동'이라는 평가를 받던 유영은 미래를 내다보며 험난한 도전의 길에 첫발을 내디뎠다.

유영은 트리플 악셀 훈련을 하루도 빼먹지 않았다.

수없이 넘어져서 발목이 통통 붓고 몸에 멍이 들어도 뛰고 또 뛰었다.

트리플 악셀은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신기루 같았다. 일반 점프보다 '반 바퀴'만 더 돌면 되지만, 그 반 바퀴가 문제였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유영은 국내 대회 우승을 휩

쓰는 '간판'이 됐다. 그러나 트리플 악셀은 여전히 쉽게 잡히지 않았다.

그는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트리플 악셀은 2019-2020시즌에 조금씩 잡히기 시작했다. 실전대회에서도 곧잘 착지가 성공했다.

경쟁력을 갖춘 유영은 트리플 악셀을 앞세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그랑프리 대회, 2020 4대륙 피겨선수권대회 등 많은 국제대회에서 입상했다.

희망이 커졌다.

그런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유영은 주훈련지인 미국으로 출국하지 못했다. 유영은 지난해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다.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을 일 년 앞두고다.

평생 도전했던 트리플 악셀을 올림픽 데뷔 무대에서 성공하겠다는 이를 악물었다.

유영은 운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부상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계속 트리플 악셀을 시도했다.

베이징으로 향하는 출국 당일 새벽까지도 유영은 훈련에 매진했다.

그리고 수년 동안 매달렸던 '그 기술'의 완성을 위해 힘차게 뛰어올랐다.

찰나의 순간에 3바퀴 반을 돈 유영은 가볍게 은반 위에 착지했다. 유영은 그제야 활짝 웃었다.

심판은 다운그레이드(Downgrade) 점프의 회전수가 180도 이상 모자라는 경우 판정을 내려 점수가 크게 깎였지만, 유영은 개의치 않았다.

스스로 수긍할 만한 연기력을 펼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실 이날 유영의 트리플 악셀은 다운그레이드 판정으로 기본점이 8.00점에서 3.30점으로 내려앉았고, 수행점수(GOE)가 0.99점이나 감점됐다.

두 바퀴 반을 도는 더블 악셀을 클린할 때보다 낮은 점수가 매겨졌다.

고난도 점프는 실패할 때 점수 계산과 메달 경쟁에서 큰 손해를 본다. 그래도 유영은 웃었다.

/연합뉴스



도핑 테스트 양성 눈물? 약물!

쇼트 82.16점 러시아 발리예바 1위 했지만 세계 언론 반응 싸늘 IOC "메달 따도 시상식 않겠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한 카밀라 발리예바(16·러시아올림픽위원회)가 17일 프리스케이팅 성적을 합쳐 금메달을 따더라도 상치뿐인 영광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9 광주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에서 도핑논란에 휩싸인 손양이 금메달을 따냈음에도 시상식에서 상대 선수들이 사진 촬영을 거부하고 시상대에 함께 서는 것조차 거부했던 사태가 오버랩된다. 그만큼 선수들은 물론 팬들의 시선이 싸늘하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대회 폐막 나흘을 남긴 16일 일일 브리핑에서 발리예바가 메달권에 입상하면 그의 기록에 '별표'를 붙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발리예바의 도핑 논란이 해결될 때까지 그의 올림픽 기록을 '잠정 기록'으로 판단하겠다는 조처다. IOC가 역시 발리예바가 동메달 이상을 획득하

면 이번 대회에서 피겨 여자 싱글 꽃다발 전달식과 공식 시상식을 열지 않겠다고 한 것도 바뀔 가능성이 있는 잠정 결과여서다.

약물 양성 반응이 밝혀진 뒤에도 올림픽 출전을 강행한 카밀라 발리예바는 15일 중국 베이징 캐피탈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 출전해 기술점수(TES) 44.51점, 예술점수(PCS) 37.65점, 총점 82.16점을 받았다. 다소 불안한 연기를 선보였지만 발리예바는 1위를 차지해 프리스케이팅에 진출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 언론의 반응은 싸늘했다.

KBS·MBC·SBS 해설진은 15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쇼트 프로그램에 발리예바가 출전하자 연기를 펼친 약 3분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KBS와 SBS 해설진은 발리예바의 연기가 끝나고 주요 장면 영상이 재생될 때에서야 점프 실수 등에 대해서만 간략히 해설했고, MBC 해설진은 경기 중 대체로 침묵을 지키면서 기술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다. 이러한 '침묵 중계'는 도핑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사실이 알려진 발리예바가 경기에 출전할 때 대한 항의 표시로 해석됐다.

미국 NBC 방송의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해설진도 카밀라 발리예바의 경기 도중 침묵을 지켰다.

15일(현지시간) 미국매체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과거 올림픽 무대에 서기도 했던 타라 리핀스키와 조니 위어는 이날 중국 베이징 캐피탈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 경기의 해설을 맡았다. 이들은 2014 소치 동계올림픽 때부터 NBC 해설을 맡아 꽤할한 어조로 선수의 연기를 설명하거나 피겨스케이팅계 내부의 이야기를 풀어놓았지만 이날 발리예바의 경기에서는 평소와 달리 거의 입을 떼지 않았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연합뉴스

“작은 응원에도 감사”...화려한 조명 없어도 최선 다한 태극전사들

전남체육회 티모페이 랍신 등 한국 선수들 “남은 경기 최선”

“너무나 감사하게도 많은 분의 관심과 응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묵묵하게 남은 경기를 최선을 다해 임하려고 합니다.”

한국 스키 크로스컨트리 국가대표 한다솜(경기도청)이 최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남긴 글이다.

4일 개막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어느덧 막바지를 향해 가는 가운데 이번 대회에 출전한 65명의 태극 전사들도 서서히 남은 일정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메달 전부가 빙상 종목에서 나왔고, 인기도 역시 빙상이 설상에 비해 압도적이라 TV 중계나 현지 소식을 전하는 기사 대부분이 빙상에 집중된 것이 사실이다.

공교롭게도 국내 비인기 종목들이 베이징에서 먼 곳에서 열리다 보니 매체당 1~3명 정도의 취재 기자를 파견한 국내 언론에서 오히려, 장자커우 경기를 적극적으로 취재하기에 어려움이 컸다.



한국 한다솜이 크로스컨트리 스키 여자 7.5km+7.5km 스키애슬론 경기에서 경사 코스를 내려오고 있다. 한다솜은 경기 완주에는 실패했다. /연합뉴스

이번 대회 오프닝과 장자커우에서 활약한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은 성적이나 인기 때문에 경기 장면이나 소식이 많이 전해지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래서 팬들의 작은 관심에도 더 감사하며 남은 일정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한다솜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올림픽이라는 목표를 위해 4년, 아니 그것보다 더 오랜 시간을 수많은 땀과 눈물을 흘렸고 저는 지금 그 자리에서 있습니다”라며 “너무나 감사하게도 많은 분의 관심과 힘이 나는 응원 메시지들을 받고 있다”고 밝

했다.

그러면서 “저는 묵묵하게 남은 경기를 최선을 다해 임하려고 합니다”라며 “메달 획득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잘 알기에 저는 계속해서 한계에 도전하고 훈련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같은 크로스컨트리 종목 김민우(평창군청) 역시 “비인기 종목인 크로스컨트리 스키가 국민 스포츠로 거듭날 수 있게 남은 경기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 최고령 선수인 이재원(41·평창군청)과 최연소 선수 이재운(16·봉담중)도 장자커우에서 각각 자신의 6번째 올림픽과 올림픽 데뷔전의 열정을 나란히 불태웠다.

또 귀화 선수들이 티모페이 랍신(전남체육회), 프리셰 아일린 크리스티나(경기도청), 압바꾸모바 예카테리나(석정마크셔릿)도 오프닝과 장자커우에서 ‘태극 전사’들이었다.

오프닝에서 열린 알파인 스키에 출전한 김소희(하이원)는 여자 대회전 33위에 올라 한국 여자 선수의 올림픽 알파인 스키 최고 순위 타이 기록을 세웠다. /연합뉴스

코로나 양성 격리됐던 스키 선수 코스 헛갈려 다잡은 금메달 놓쳐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10일 넘게 격리됐다가 경기 전날 완치 판정을 받아 가까스로 올림픽 무대에 선 노르웨이 스키 선수가 코스를 헛갈려 다잡았던 금메달을 놓쳤다.

알 마그누스 리베르(노르웨이)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 중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격리 조치됐다.

답답한 공간에서 풀려난 리베르는 15일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에서 열린 스키 노르딕 복합 경기에 출전했다.

리베르는 먼저 진행된 스키 점프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스키 점프에서 최고의 성적을 낸 리베르는 2위에 무려 44초나 먼저 출발, 금메달이 유력해 보였다. 그러나 이때 리베르는 정해진 코스가 아닌 다른 코스로 들어서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정해진 코스로 뒤늦게 돌아왔지만 이미 다른 선수들이 그를 앞지른 뒤였다. 결국 리베르는 1위에 오하려 39.8초 뒤진 8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그는 “이번 대회는 나와 안 맞는 것 같다”며 “바보 같은 실수를 했고, 전 세계에 금메달을 놓치는 모습을 보여준 셈이 됐다”고 씁쓸해했다. /연합뉴스